

권영진 대구시장 등 시조 태사공 고유제 봉행



지난 6·13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동권문(權門)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과 각 파종회장 등 40여 명이 시조 태사공(太師公) 묘소와 아시조 낭중공(郎中公) 단소에 합동(合同) 고유제(告由祭)로 참배(參拜)하였다.

이날 권해욱 대중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권재혁 서울동대문구 의원, 권경협 부산사상구 의원, 권정복 강원도 삼척시 의원, 권영석 경남 합천군 의원, 권순현 대중회 상임부회장, 권건중 대중회 사무총장, 권오의 사무부총장, 권숙동 안동총친회 회장, 권정창 제례위원장, 권기호 북야공파 회장, 권오수 동정공파 회장, 권영건 부호장공파 회장, 권대능 안동청장년회 회장, 권영길 국학진흥원 인문정신

연수원장, 권갑수 부산청장년회 회장, 권영수 대구청장년회 회장, 각 파종회 부회장, 능곡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능동재사 마당에서 검은색 갖에 검정색 제복(祭服)을, 다른 참배객은 도포(道袍)를 각각 입고 권해욱 대중회 회장을 선두로 시조 묘소로 향하였다. 시조 묘소 제석(祭石) 위에는 주과포(酒菓脯)가 마련되었으며 참배객은 흰 국화꽃 한송이씩 헌화하였다.

이 자리에서 집례(執禮)는 권혁창씨가, 축(祝)은 권정창 제례위원장이 담당하였으며 권영세 안동시장은 분향(焚香) 헌화(獻花)하고 참배객 전원이 합동으로 고유제를 올렸다.

합동 고유제가 끝나자 시조 묘소 앞에서 참배객 전원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권정창 제례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풍산 류씨와의 천등산 시조 묘역에 얽힌 비사(秘史)와 야사(野史)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권춘섭 전 별유사는 1906년 4월 16일 시조묘 도굴 사건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다.

이날 권정복 삼척시 의원은 뿌리를 찾고 싶어 대학생 딸과 함께, 권경협 부산 사상구의원은 아들과 함께 시조묘를 참배해서 참석자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눈길을 끌었다.

참배객은 시조 묘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아시조 낭중공 단소로 이동하였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갑수 부산청장년회장

고유제 참석한 지방선거 당선자 선물대금 175만원 독자부담



권갑수 부산청장년회 회장은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 대회장이다.

권회장은 전국청장년대회의 부산 개최를 맞이하여 100만 족친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권회장은 지난 8월 27일 전국 지역청장년회장협의회 임시회 및 단합

대회가 개최되는 현장을 대회 준비 임원진들과 함께 방문하여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청장년회장단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9월 1일 안동에서 6.13 전국 지방선거 당선자 시조묘 합동 고유제에도 참석하여 당선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권회장은 고유제에 참석한 당선자들에게 주는 175만원 상당의 기념품 비용을 찬조하여 고유제를 더욱 빛나게 했다. 권회장은 평소 애족과 승조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선을 고정시키는 전기배관 자재와 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네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0월 회비 납부 및 찬조금 내역

<부회장 회비>
권경석(서울) : 1,000,000원
권영훈(경주) : 1,000,000원
권영열(서울) : 1,000,000원

<중무위원 회비>
권정환(상주) : 200,000원
권순채(문경) : 200,000원

<찬조금>
권갑수(이사) 고유제 기념품 대금 1,750,000원
안동권씨 예조참판공파 회장 권덕용 100,000원
권순무(인천) : 120,000원

총계 : 5,37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안동능곡회, 2018 능동고택 음악회 개최



능동고택음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기호 능곡회 회장

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출연진들은 추원루(追遠樓)에서 공연을 하도록 준비를 끝냈다. 해마다 추원루 앞 넓은 광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비 때문에 부득이 능동재사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행사가 열리기 전 능곡회 권기호 회장 등 임원진들은 시조묘소에서 고유제(告由祭)를 올릴 계획이었으나 비 때문에 포기, 능동재사 마루에서 주과포(酒菓脯)를 마련, 고유제를 봉행(奉行)하였다. 주최 측은 저녁에 기운이 내려갈 것에 대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그마한 담요 한 장씩과 떡, 물을 준비, 관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안동MBC리포터인 정소영 MC는 사회를 맡아 먼저 권영세 안동

시장을 비롯하여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 권오을,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광택, 김경도 시의원, 권순현 대중회 상임부회장, 권영길 국학진흥원 인문연수원장, 권기원 능우회장 등 내빈을 소개하였다. 이날 능우회원 및 능곡회원, 부인회원, 주민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식전공연으로 '코렐리 기적소리' 난타팀 5명은 <트위스트>, <내 나이가 어때서>, <황구의 남자> 등 4곡을 연주하면서 난타를 신나게 두들겼으며 권영국, 김재영으로 구성된 서부색소폰팀은 <들국화 여인>, <안동역에서> 2곡을 연주하고 앙코르 송으로 <시계바늘>을 연주하였다.

이어 능곡회 권기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비가 와서 관객들에



음악회가 끝나자 능곡회원들이 추원루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조진영 심어송라이터가 <개뽤>를 노래하고 있다.

게 미안하지만 뿌리깊은 고택에서 아름다운 곡을 즐겁게 감상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비가 오는데도 여러곳에서 각종 행사가 열려 좀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능동고택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진영 심어송라이터는 통기타를 어깨에 메고 무대에 등장, <행복의 나라>, <절레절레> 등 3곡을 노래하고 앙코르 송으로 <개뽤>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아톰목관 앙상블은 관악합주로 <아리랑>, <마음 약해서> 2곡을

연주하였다. 중국에서 공연을 마치고 곧장 달려왔다는 조정민 팝페라는 <만남>, <그대 그리고 나> 등 3곡을 열창한 후 앙코르를 받아들여 <천년지기를>를 신나게 열창하여 박수를 받았다. 안동국악협회장인 임동길원외고를 졸업, 현재 밴드 아성국씨는 대금으로 <서편제>를 연주하였으며 최유하 양은 해금으로 <사랑을 위하여>를 연주한 후 두 연주자는 이중주로 <인연>을 연주하였고 앙코르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연주,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무대는 윤성 초청가수가 등장, <롤리라이>, <새아리랑> 등 3곡을 열창, 앙코르로 <아름다운 강산>을 추원루가 떠나 갈 듯 열창했다. 윤 가수는 고향이 안동이며 안동길원외고를 졸업, 현재 밴드 아프리카 메인보컬로 활약중이다.

3시간에 걸친 음악회가 끝나자 추원루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아울러 출연자들과도 함께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주물 제조 전문기업



용해로



자동차용 프레스형 주물, 기계부품·선박부품 등 주물 제조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대경로 2929-134 ·연락처 : 054-751-8822 ·FAX : 054-751-8184

주식회사 대산금속 대표이사 권영훈

회사전경